

중량·성능 완벽한 밸런스 포르쉐 '마칸 T' 최초 공개

최고출력 265마력·최대토크 40.8kg·m



포르쉐 마칸 T

포르쉐 AG가 한층 더 민첩하고, 강력한 성능을 갖춘 마칸 T(Macan T)를 최초 공개했다. 마칸 T는 기존 911, 718 모델에서만 사용되었던 투어링(Touring)의 약자인 'T' 명칭을 붙인 최초의 4도어 스포츠카다.

마칸 T는 2리터 4기통 터보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265마력, 최대토크 40.8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PDK)와 포르쉐 트래션 매니지먼트(PTM) 사륜 구동 드라이브 시스템이 조합되어, 모든 주행 상황에서 즉각적인 가속이 가능하다. 또한 모드 스위치가 포함된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와 스티어링 휠의 스포츠 리스폰스 버튼을 장착해,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하는데 6.2초가 소요되며, 최고속도는 232km/h다.

마칸 T는 민첩성, 경량화, 콤팩트 디자인을 모두 갖춰 중량과 성능 사이의 완벽한 밸런스를 만들어낸 것이 특징이다.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PASM)를 기본 사양으로 탑재한 스티어링 플러스와 15mm 낮아진 차체를 결합한 유일한 포르쉐 모델이기도 하다.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한다면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을 추가해 차체를 10mm 더 낮출 수 있으며, 드라이빙 다이내믹을 강화하는 포르쉐 토크 벡터링 플러스(PTV Plus)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포르쉐 마칸 T는 2022년 4월 독일 시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부가세 및 특별 사양을 포함한 판매 가격은 6만9462 유로(약 9446만 원)부터 시작한다. 마칸 T의 국내 출시 계획은 없다. 원성열 기자

지프 랭글러 4xe·뉴 푸조 308 'WWCOTY' 선정



뉴 푸조 308

스텔란티스 산하 지프와 푸조 브랜드가 '세계 여성 자동차 기자가 뽑은 2022 올해의 차(WWCOTY)'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면서 6개 수상 부문 중 베스트 사륜구동과 베스트 도심형 부문을 석권했다. WWCOTY는 세계 여성 자동차 언론인이 수여하는 자동차 상으로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5개 대륙, 40개국에서 활동하는 56명의 여성 자동차 저널리스트가 참여해 ▲안전 ▲주행 ▲기술 ▲디자인 ▲효율성 ▲편안함 ▲환경에 미치는 영향 ▲비용 대비 가치 등을 평가한다. 1차 심사에 총 65개 차종이 후보에 올랐으며, 이 중 6개 부문에서 올해의 자동차를 선정했다. '지프 랭글러 4xe'는 '베스트 사륜구동(4X4)' 부문을 수상했다. SUV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하이브리드를 통해 친환경에 한발 다가섰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뉴 푸조 308'은 '베스트 도심형(Urban)' 부문을 수상했다.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팔방미인 EV6, '올해의 차' 휩쓸만 하네!

(한국·영국·독일 등)

복합기준 주행거리 434km 넉넉 초고속 충전시 80%까지 단 18분 고속주행시 안전성·민첩한 반응 V2L 기능으로 220V 공급도 가능



기아 EV6는 넉넉한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와 스포티한 스타일 및 주행 감성, 빠른 충전 속도 등을 통해 글로벌 주요 자동차 시상식에서 '올해의 차'를 수상하며, 가장 주목받는 전기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원성열 기자

기아 EV6가 국내외 자동차 시상식을 휩쓸며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EV6는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2022 '올해의 차' 수상, 영국 왓 카 어워드 2022 '올해의 차' 수상, 독일 2022 올해의 차 '프리미엄' 부문 수상 등 자동차 전문가들로부터 혁신성과 상품성을 인정받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기차로 자리매김했다. EV6는 어떤 매력에 있을까. 서울에서 영종도까지 왕복 150km 구간에서 EV6 롱레인지 2WD 모델을 시승했다.

●1회 충전 434km, 넉넉한 주행 거리

전기차를 운행해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사양은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다. 기아 EV6는 앞서 출시된 아이오닉5보다 더 넉넉한 용량의 배터리를 적용해 상대적으로 주행 가능거리가 더 길다.

EV6 롱레인지 2WD 모델(20인치 타이어)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복합 기준 434km(도심 478km, 고속도로 380km, 배터리 용량 77.4kWh)다. 같은 사양 현대차 아이오닉5의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복합 기준 401km(도심 446km, 고속도로 345km, 배터리 용량 72.6kWh)다.

두 차량의 복합 기준 공인 전비는 4.9km/kWh로 같지만, 배터리 용량 차이가 주행 가능 거리의 차이를 가져왔다. 복합 기준 전비는 33km 차이이지만 실제로 운행해보면 완충했을 경우의 심리적인 안도감, 실제 운행 가능거리 등에서 확실

기아 EV6 롱레인지 2WD 주요 제원	
롱레인지 2WD(20인치 타이어)	
배터리 용량(kWh)	77.4
모터 최고 출력(kW/ps)	168/229
모터 최대 토크(Nm)	350
복합전비(kWh)	4.9km/kWh
1회 충전 복합 거리(km)	434
가격	5680만 원(GT라인, 세제후)

하게 차이가 난다.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현대차는 아이오닉5 롱레인지 트림의 배터리 용량을 77.4kWh로 늘린 2023년형 모델을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EV6에는 스마트 회생 시스템 2.0이 적용되어 있다. 전방 교통 흐름 및 내비게이션 지도 정보를 이용하여 회생 제동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술이다. 가속 페달만을 이용하여 가속 및 감속, 정차까지 가능한 주행모드인 i-페달(Intelligent Pedal) 모드까지 사용하면 실제 전비는

5.2km/kWh 수준으로 높아진다. 뛰어난 충전 효율성도 EV6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원동력이다. EV6에는 400V/800V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이 적용됐다.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이용하면 18분 만에 10%에서 최대 80%까지의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다.

●더욱 스포티해진 주행 성능

EV6 롱레인지 2WD 모델의 모터 최고 출력은 168/229(kW/ps, 229마력), 모터 최대 토크는 350(Nm)이다.

아이오닉5가 넉넉한 공간에 더 포커스를 맞췄다면 EV6는 상대적으로 한층 더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속감은 아이오닉5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고속 직진 주행시의 안전성과 고속 코너링, 스티어링휠의 민첩한 반응성에서도 EV6가 비교 우위에 있다. 승차감에서도 차이가 난다. 차체 하부에 배

터리가 위치해 있어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은 비슷하지만 EV6의 서스펜션이 조금 더 단단한 편이다. 노면의 요철을 지날 때의 충격은 다소 있는 편이지만, 단단하고 안정적인 주행 질감을 선호한다면 견딜만한 수준이다.

가속들과의 캠핑, 차박, 장거리 여행을 중시한다면 아이오닉5를, 스포티한 스타일과 성능을 중시한다면 EV6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물론 EV6에도 차량 외부로 220V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V2L 기능이 장착되어 있어 캠핑, 여행 등 다양한 외부 활동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안전 사양도 충실하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NSCC),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등이 기본 사양으로 적용되어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쉐보레 '볼트 EV·EUV' 2분기 고객 인도 시작

배터리 안정성 이슈로 출고 지연 "신규 배터리 모듈 제품으로 인도"

쉐보레 '2022년형 볼트EV'와 국내 첫 출시되는 브랜드 최초의 전기 SUV '볼트EUV'가 올해 2분기 중으로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

두 모델은 지난해 8월 사전 계약을 시작했고, 뛰어난 상품성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배터리 안정성 이슈로 인해 출고가 지연되어 왔다. 쉐보레는 "2분기부터 고객 인도가 시

작되는 차량들은 신규 배터리 모듈이 적용된 제품으로 계약 일시 및 모델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도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볼트EV는 국내 전기차 시장의 대중화를 연 상징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볼트EUV는 매력적인 디자인과 공간·성능을 앞세워 주목받고 있다. 볼트EV의 가격은 4130만 원, 볼트EUV는 4490만 원(정부 및 지자체 전기차 구입 보조금 제외 기준)이다.

2022년형 볼트EV와 EUV에는 10.2인치 고화질 터치스크린이 탑재된 EV 전용 인



신형 볼트EV와 볼트EUV는 150kW급 고성능 싱글 모터 전동 드라이브 유닛을 탑재해 최고출력 204마력, 최대토크 36.7kg·m의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1회 충전으로 403~414km를 주행할 수 있다. 사진제공 | 쉐보레

포테인먼트 시스템, 8인치 스마트 디지털 클러스터, 버튼식 기어 시프트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등이 기본 적용됐다.

신형 볼트EV와 볼트EUV는 150kW급 고성능 싱글 모터 전동 드라이브 유닛을 탑재해 최고출력 204마력, 최대토크 36.7kg·m의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한다. 또한 신형 배터리 모듈이 탑재된 LG에너지솔루션의 66kWh 대용량 배터리 패키지를 통해 1회 충전으로 볼트EV는 414km, 볼트EUV는 403km를 주행할 수 있다.

안전사양도 풍부하다. 볼트EV와 EUV에는 360도 어라운드 세이프티를 구현하기 위해 ▲등급 최대인 10개의 에어백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이탈 방지 경고 및 보조 시스템 ▲저속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 시스템 등 총 14가지 능동 안전사양이 적용됐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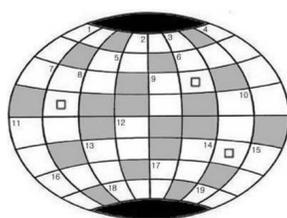
■ 스토쿠문제

		4	2	9				
		6	7	4				
7			1			2	4	
	4		1	2		8		
3	2			7		1		
	7		9	6		4		
2	9		6				8	
			8		1	2		
		7	5	4				

■ 스토쿠정답

6	1	8	9	2	4	7	5	3
9	2	1	6	8	9	5	7	4
8	9	6	7	1	6	2		
2	7	9	8	6	8	1		
1	6	7	8	9	2	9	8	
8	9	2	1	6	7	9		
7	2	9	1	9	5	8	1	
9	8	1	7	8	1	9	2	6
4	9	6	9	2	7	1	8	
2	9	1	8	9	7	1	6	8
1	9	8	6	9	2	1	9	
1	6	9	7	8	2	1	9	
7	8	2	9	1	8	6	9	
9	8	1	2	6	9	2	7	
5	2	9	7	1	2	6	8	
8	1	7	9	6	1	9	2	
6	2	6	1	8	9	9	7	1

■ 낱말문제



■ 가로 열쇠 01.여럿 가운데서 가려냄. 03.트집을 잡아 시비하려 드는 듯한 투. 05.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 06.이 마로부터 정수리까지의 머리털을 양쪽으로 가른 금. 07.순간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능력. 09.외부의 침략이나 공격을 막아 지킴. 10.집이나 마을 부

근에 있는 작은 산이나 언덕. 11.하던 일을 중도에 그만두어 버림. 13.물품이나 자재를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건물. 14.영뚱하게 판전을 부림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16.품무를 차려 놓고 시우쇠를 다루어 온갖 연장을 만드는 곳. 17.다툼질을 그치고 풀. 18.몸을 보호하기 위한 무술. 19.깨뜨리거나 찢어서 내어 버림.

■ 세로 열쇠 01.먼저 와 닿는 차례. 02.실지로 행함. 03.조개의 껍데기. 04.말을 타고 달리며 산천을 구경한다는 뜻으로, 대충 보고 지나감을 이르는 말. 05.일을 하고 난 나머지의 힘. 08.초목의 눈이 트는 때. 09.관죽이 된 진흙이 물과 섞여 많이 끈 응덩이. 10.같은 뜻을 가지고 모여서 한 패를 이룬 무리. 11.조선 시대에 둔,

플레이 스토어 - 경품광고퀴즈, 날마다운세, 매직스도쿠

포도청의 으뜸 벼슬. 12.남의 결함·잘못을 진심으로 타이름. 13.신문, 잡지 따위의 정기 간행물의 맨 첫 번째 호. 14.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읽. 15.보통 사람보다 야기리가 안으로 육은 국그릇. 17.말재주.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 칸을 이어붙이면 나라 이름이 됩니다.

